

# 헛개나무꿀 전립선 건강 돕는다

2026.7.1.(수) 11:00, 성제훈 국립농업과학원장(농촌진흥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 성제훈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주 뵈 수 있어서 참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모델링 이후 이 자리에 처음인데 널찍하니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기후변화로 인한 꿀샘 식물인 밀원의 감소에 대응하고 동시에 아까시꿀 중심의 산업 구조를 해결하여 양봉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추진한 헛개나무꿀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벌꿀은 아까시꿀과 밤꿀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채밀이 대부분 6월 중순이면 끝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양봉농가의 소득은 이 시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이후에는 기후변화와 밀원 부족에 따른 불안정성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주목한 헛개나무는 기상 이변에 대응하는 새로운 밀원수종을 개발하여 꿀벌을 보호하고 동시에 생태계도 보전할 수 있도록 구성한 다부처 공동연구 사업에서 발굴한 새로운 밀원수입니다.

헛개나무는 아까시꽃과 밤꽃 채밀이 끝난 6월 말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7월 초순까지 약 23일 정도 꽃을 피웁니다. 잠재적인 꿀 생산량이 ha당 301kg로 추정될 만큼 생산성이 높아 장마 전 안정적인 채밀 기회를 제공하고 아까시꿀 중심의 기존 채밀구조를 다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촌진흥청은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함께 헛개나무꽃의 다양한 기능을 탐색하던 중 국산 헛개나무꽃이 전립선 비대증 개선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전립선 비대를 유도한 세포에 헛개나무꽃을 처리했더니 만성염증 유발 단백질은 93%, 산화질소 합성효소는 64% 발현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조직을 딱딱하게 만들어 전립선 비대를 유발하는 세포 섬유화 과정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헛개나무꽃을 처리했을 때 섬유성 조직 전환 지표인 엔-카드헤린, 카드헤린의 발현은 90.6%, 비멘틴 발현은 70.2%가 감소한 것입니다.

동물실험에서도 이 같은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유도한 쥐에 6주 동안 헛개나무꽃을 먹인 결과 전립선 무게는 19.3% 감소했고 비대증을 촉진하는 호르몬은 72.2%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두꺼워졌던 전립선 상피 두께도 60.7% 줄어 정상 수준에 가까워지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헛개나무꽃의 이러한 효과가 다른 벌꿀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는 트리테르페노이드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배당체 등 다양한 대사체 성분이 항염증 작용과 면역 조절에 관여했기 때문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는 추가로 구체적인 유효성분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와 더불어 연구 성과가 실제 농가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어질 수 있도록 밀원단지와 연계한 헛개나무꽃 생산 거점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ha 규모의 헛개나무 밀원단지가 조성된 전남 장흥에서 고품질 헛개나무꽃을 생산하고 이를 프리미엄 벌꿀로 브랜드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 아까시꿀 중심의 산업구조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한 양봉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국산 벌꿀의 활용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까시꿀에 이어 밤꿀, 헛개나무꿀까지 잇따른 국산 벌꿀의 효과 입증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앞으로 국산 벌꿀이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늘 기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전문성 있게 답변해 드리고자 앞에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한국한의학연구원 권은빈 박사님과 국립농업과학원 한상미 과장님이 같이 와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자>

지금까지 국립농업과학원 성제훈 원장님께서 헛개나무꽃의 전립선 비대증 개선 효과와 양봉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세부 내용이나 자세한 답변은 말씀하신 것처럼 양봉과 한상미 과장님 그리고 권은빈 박사님께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02)

##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헛개나무꿀의 프리미엄화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여 지는데요. 그런데 그 전제가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꿀과의 차별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꿀은 그렇다면 잡화꿀이나 헛개나무꿀 이런 건 없고 다른 종류의 꿀이라고 보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헛개나무 열매가 채밀부터 열매 수확까지 최소 8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꽤 긴 시간 동안 길러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남 쪽 외에 아까시가 많은 경북이나 이런 쪽에도 식재 가능한 건지, 그런 쪽도 고려하시는지 궁금하고, 헛개나무 심는 데 얼마 정도가 드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가 헛개나무 심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가 채밀에서 수확까지 8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단지화가 어려웠는데 지금 경북이라든가 다른, 장흥만 하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어떤가 그 상황하고, 베트남 꿀하고 차별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베트남, 외국산 꿀이 우리나라에 수입할 때 차별화하기 위해서 축산물 등급판정소에서, 축산물 등급관리원인가 거기에서 등급을 매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꿀만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외국하고 차별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그 성분 차별화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헛개나무꿀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거의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헛개나무꿀은 우리가 특별히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채밀부터 수확까지 8년이나 걸리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단지를 만들었던 게 2군데예요. 그중에 장흥만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제가 현장을 며칠 전에 가봤는데요. 그분은, 그곳에서는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관리를 매우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지원을 해 주고 다른 곳도 필요하면 저희가 계속해서 단지화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한 8년이나 걸리다 보니까 초기에 투자를 했다가 도중에 탈락하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헛개나무 심는 데 비용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답변>** (한상미 국립농업과학원 양봉과장) \*\*\*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묘목이 생산되는 단계인데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는 값이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ha당 산정은 아직 못한 상태라서 저희가 자료로 다시 메일로 송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헛개나무는 냉장고에 보통 우리가 숙취해소제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한의학연구소에서 연구하실 때 꿀의 여러 가지 기능성 성분을 탐지를 할텐데 어떻게 전립선 비대증에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게 발견됐습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요?

<답변> 그거는 한의학연구원에서 조금 더 답변을 주시겠는데요. 우리가 헛개나무 하면 숙취해소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사업이 잘 되다가 우리 코로나 때 모임을 못 하게 하니 숙취해소제가 안 팔렸어요. 그러면 단지는 만들어놓고 생산은 했는데 헛개나무 다른 가능성이 있어야 방향을 틀어줄 텐데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연구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 중에서 찾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권은빈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안녕하세요? 한국한의학연구원 권은빈입니다. 기자님께서 질문 주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헛개나무꽃과 다른 꽃들을 많이 농진청으로부터 받아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성 평가를 진행했고 그중에서 헛개나무꽃이 가장 효과가 좋았던 질환이 전립선 비대증이어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질문> 혹시 연구를 하실 때 헛개나무꽃에는 이렇게 숙취해소에 관련된 물질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답변> (권은빈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그 부분은 지금 분석을 저희도 의뢰를 한... 의뢰를 했고 그리고 대사체에 대한 분석도 진행했기 때문에 그 성분을 받아서 저희도 지금 성분 효능 평가를 예정하고 있어서 그 성분들을 다 추후에 저희도 평가를 하고 다시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원장님, 이번 '헛개나무꽃 전립선 건강 돕는다.'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

자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답변>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시면.

<답변> (한상미 국립농업과학원 양봉과장) 자료에도 있고요. 저희가 전립선 비대증뿐만 아니라 비대증이 나중에 전립선암과도 연관 돼 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남성 암 발생률 1위가 전립선 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몇 명이나 됩니까?

<답변> (한상미 국립농업과학원 양봉과장) 몇 명... 죄송합니다, 자료로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니까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전립선 기능을 개선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립선 비대증을 억제한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한의학연구원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권은빈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개선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전립선 비대증 억제라고 얘기할 순 없나요?

<답변> (한상미 국립농업과학원 양봉과장) 비대증이 생기게 한 다음에도 실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후로 비교를 했었습니다. 전후 비교

를 했을 때 모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거는 개선에도 효과가 있고 억제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 이거 헛개나무꿀이 6월부터 저희들이,

<답변> 꽃이 핍니다.

<질문> 꽃이 핀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시하고 밤꿀에서 놀던, 놀다가 쉬고 있던 꿀벌들이 굉장히 바빠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헛개나무꿀 생산량이 국내 벌꿀 생산에 총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답변> 0. 몇 퍼센트였죠?

<답변> (한상미 국립농업과학원 양봉과장) 0.3%입니다.

<질문> 0.3%요?

<답변> 네.

<질문> 그렇군요. 권 박사님, 하나만 더 여쭙볼게요. 아까 마우스를 통한 실험은 마무리가 된 거죠?

<답변> (권은빈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네.

<질문> 그러면 그 임상실험은 언제 시작하려고 하고 계신 거죠?

<답변> (권은빈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저희가 지금 임상실험 단계까지는 지금 성분실험을 하고 추후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 라고 얘기하려면 임상실험까지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답변> (권은빈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네.

<질문> 그럼 식약처에 건기식 원료 등록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한상미 국립농업과학원 양봉과장) 그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연구비를, 임상 연구비를 확보한 다음에 연구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 지금 전임상 단계까지가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전립선 비대증 개선 가이드라인에 맞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비용은 훨씬 더 낮출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내년, 늦어도 내후년부터는 착수가 가능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질문> 그러면 식약처에서 원료로 인정받는 게 내후년? 2028년쯤?

<답변> (한상미 국립농업과학원 양봉과장) 보통, 보통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전에 임상실험 마치시고,

<답변> (한상미 국립농업과학원 양봉과장) 네, 2027~2028년,

<질문> 원료 등록하는 것까지 2028년?

<답변> (한상미 국립농업과학원 양봉과장) 네, 2028년에서 늦으면 2029년까지는 효과가 있다고 가정하여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꿀의 종류별로 비율은 Q&A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시꿀이 76%, 잡화꿀이 16%, 밤꿀이 5% 그리고 헛개나무꿀이 말씀하신 것처럼 0.3% 정도 됩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헛개나무 꿀의 효능 입증에 양봉농가의 소득 안정화와 국산 벌꿀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에 관심을 가져주신 기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추가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오찬 장소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